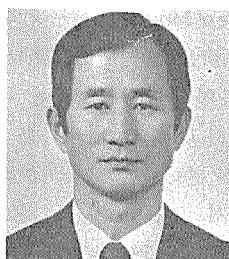


## 國內 컬러TV 産業의 發展을 위한 提言



柳 遠 榮  
韓國電子(株) 社長

영상정보사회의 꽃인  
컬러 TV산업은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제공 서비스의  
영역이 다양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1980년에 국내 보급이 시작된 이래  
현재의 보급률은 68%로 아직도  
내수시장 활성화와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 신기술 개발과  
제품의 고급화, 외국규격의  
철저한 연구가 요구된다.

###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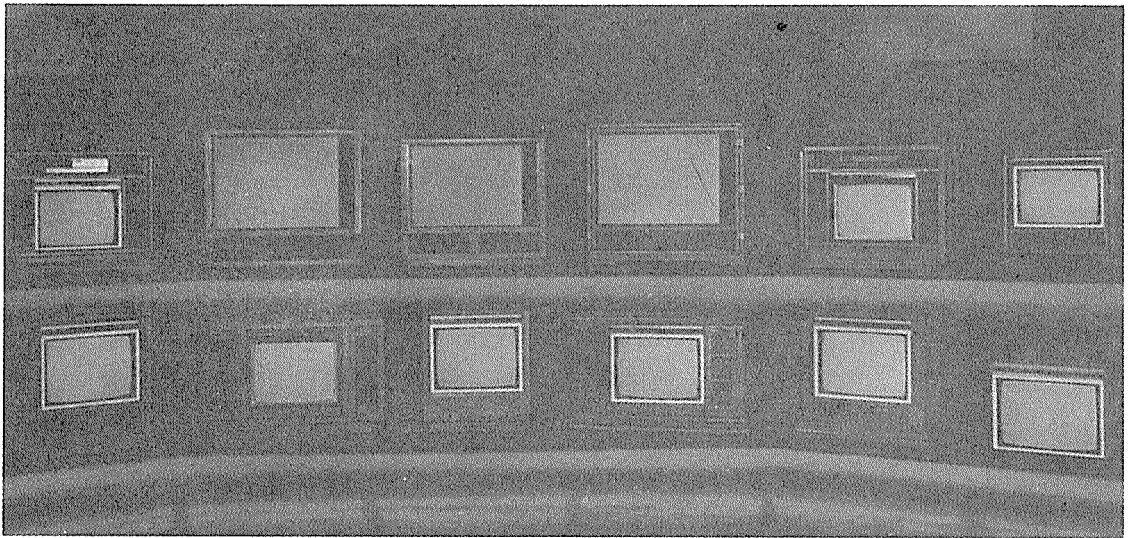
컬러TV는 映像情報社會의 꽃이라고 할 만하다. 급속한 技術의 發展으로 그 用途는 점점 더 多樣化되어 가고 있으며 인간에게 提供하는 서비스도 계속 그 범위가 拡大되어 우리의 文化 樣態는 엄청나게 变해 가고 있다.

이러한 컬러TV가 国内에서 처음 生産되기 시작한 것은 1974年으로서 그 期間은 日淺하나 国内 電子産業과 国民 생활, 경제 생활에 미친 영향은 至大하다.

1960年代 中半부터 黑白TV의 조립 生産이開始되면서 우리나라의 TV 産業은 그 成長度가 매우 빨라 기술축적이나, 生産여건에 있어서 컬러TV 生산도 가능하게끔 되었다. 컬러TV 産業의 급속한 發展은 곧 우리나라 電子産業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VTR, 전자렌지 등과 함께 우리나라 電子産業의 戰略的 品目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컬러TV 産業은 급속한 量的 成長만을 追求하므로써 産業의 基盤, 技術의 定着이 脆弱하다는 점과 先進諸국과의 競熱한 경쟁 속에서 貿易 障壁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는 二重苦에 直面해 있는 現実에서 컬러TV 産業의 挑躍을 위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코자 한다.

### 2. 컬러TV 産業의 特性

컬러TV는 家電製品의 代表的인 存在이다. 따라서 용도의 多樣化와 高度의 신뢰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高度의 技術開發 能力과 応用力이 필요하며 産業界, 특히 素材産業, 部品産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컬러TV의 需要是 계속 새롭게 創出되고 있는바, 1家具 1台의 家電製品의 개념에서 1人 1台의 家電製



현재의 컬러TV산업은 단순한 조립차원에서 고도의 첨단기술 차원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品의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므로 需要의 增加가 지속될 것이며, 情報産業이나 放送通信産業의 급속한 發展에 따라 그 사용범위는 더욱 拡大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全世界的 需要를勘案하면 輸出戰略産業으로서의 價值 또한 매우 크며 落後된 素材産業, 部品産業의 系列化에 미치는 波及效果도 매우 크다. 電子産業의 總集結이라 하여도 無理가 아닌 것이다.

### 3. 컬러TV産業의 現況

#### 가. 概況

1940年 NTSC 방식의 컬러TV 放送이 美國에서 始作된 이후 PAL 방식, SECAM 방식 등 세가지 방송방식의 컬러TV 방송이 現在 約 90 여개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世界 總需要는 금년도 約 5,200万台, 1991年에는 6,700万台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선진국의 경우 신기술 혁신 및 새로운 放送方式(音声, 文字多重, Videotex 放送)의 채용에 따른 代替需要, 新規需要를 들 수 있고, 아직도 보급률이 낮은 中·後進국의 경우는 계속적인 보급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컬러TV의 生産거점으로 先進諸국의 競争력이 弱化됨으로 인해 先進국의 자체 생산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開途國으로의 생산이 전이 뚜렷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

어 이들 国家의 역할과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 나. 技術動向

최근 선진국의 技術水準은 半導体工業의 눈부신 發展에 힘입어 製品의 고급화 및 多機能化가 급속히 進行되어 Digital TV, LCD TV, 평면 TV, 대형 TV 및 고부가가치의 기능을 추가한 多機能 TV(Videotex, Teletext 대응, R-GB 대응, Printer 기능 등)가 實用化 단계에 와 있고 立体 TV는 머지않은 장래에 出現이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New Media 대응의 情報化社會에 대비한 Multi 기능 TV도 곧 보편화되는 단계에 와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이제 겨우 Regular 컬러TV의 自體 設計能力의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되며, 현재 우리나라의 素材産業 및 관련 산업분야의 기반과 기술상의 취약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先進諸국과의 技術水準上의 갭은 당분간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다. 우리나라의 生産現況

1980年 国内販売가 허용된 이후 연평균 120만 대의 수요가 뒷받침이 되어 순조로운 신장세가 지속되어 왔으나 美國市場에서의 Anti-Dumping 규제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신장세가 둔화되기도 하였지만 적극적인 수출시장의 다변화, 미국 현지공장으로의 進出 등으로 제반 불리한 여

건에 잘 대응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내의 생산 규모면에서는 최근 2년 동안 450만대 선을 유지하여 왔고 85年末부터 계속되고 있는 円高 현상으로 인한 수출 급증으로 인해 금년의 생산규모는 量的인 측면에서 예년보다 크게 增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円高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製品의 国際競爭력이 強化되었다고는 하나 중요 핵심 部品의 対日輸入依存度가 높아 強化된 競争력의 폭 이상으로 손실이 늘어나고 있고 対日弱點마저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策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 4. 發展을 위한 提言

##### 가. 部品 및 素材產業의 育成

현재 우리나라 컬러TV의 部品 및 原資材의 輸入依存度는 약 20% 前後에 이르고 있다. (Model에 따라서는 50% 이상에 이르는 것도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TV产业이 기초소재 산업으로부터 발전·전개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部品의 組立生產으로부터 出發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部品의 輸入依存度로는 지금과 같은 國際經濟 与件下에서 우리나라 컬러TV 产业의 發展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国家的 次元에서 金融 및 稅制上의 支援을 포함한 各種 支援施策을 마련, 部品 및 素材產業을 적극 育成함으로써 輸入原資材를 조속히 国產化하는 것이 国内 컬러TV 产业의 發展에 가장 重要的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된다.

##### 나. 内需의 活性化

지금까지 수출일변도의 컬러TV 产业은 상당한 신장세를 보여온 것은 사실이나 점차 強化되고 있는 각국의 輸入規制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급률 68% 정도에 머물고 있는 国内市場의 需要를 活性化하여 수출일변도의 Risk 分산을 꾀하는 것도 国内 컬러TV 产业의 發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特別消費稅의 폐지 혹은 下向調整, 음성다중방송의 확대실시, 문자다중방송의

조기 실시, CATV의 活性化 등을 들 수 있으며, 内需와 輸出을 균형 발전시켜 나가므로써 기술경쟁력, 수출경쟁력을 提高시킬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 다. 新技術 開發 및 製品의 高級化

半導体產業의 發展으로 인해 半導体만큼이나 급속한 技術革新이 이루어지고 있는 컬러TV는 역시 先進國 주도하에 Digital 기술의 활용, New Media 对応, 多機能化 등의 기술 혁신이進行되고 있어 이러한 新技術에의 충분한 적응 능력 배양이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컬러TV 업계 共히 기술개발 부문에 대한 과감한 長期投資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產業用 TV (CAD/CAM用, 의료用) 등의 開發을 위한 高級技術人力의 양성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新技術에의 대응 이외에도 製品 高級화의 일환으로써 Design 분야의 중요성도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으므로 相對國의 Needs에 부응할 製品의 開發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Design 업무의 정립도 대단히 중요한 부문이라고 생각된다.

##### 라. 各国의 安全規格에 대한 철저한 对応

輸出相对國의 安全에 관한 諸法規는 輸入規制의 한 방면으로도 활용되고 있음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대응태세는 매우 수동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웃 日本을 예로 보더라도 世界各國의 安全規格에 대해서는 업계 共同으로 研究活動을 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각업체별로 대응하고 있어 매우 비효율적이며 情策資料入手의 빙곤, 각종 情報의 早期入手의 어려움, 專門人力의 부족으로 내용파악의 불충분 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현재 일부 安全規格을 취급하고 있는 公共機關에다 業界共同의 協力組織을 구성하여 활용한다면 上記의 제반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외에도 최근 先進諸國의 輸入規制가 날로 強化되고 있으므로 어느 일국에 편중된 輸出을 지향하고 각업체가 적극적인 시장개척 노력을 기울여 輸出市場을 多元화하는

것도 国内 컬러TV 産業의 發展을 위하여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 될 것이다.

## 5. 맷음말

日淺한 국내 컬러TV 産業이 이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었거나 우연한 결과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현상에 만족할 시기는 아닌 것이다.

素材産業, 관련 부품산업의 일관된 連繫体制가 이루어져 균형있는 발전이 되지 않으면 단순한 組立次元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과감한 部品國產化의

의지가 끈기있게 계속되어 가지 않으면 안된다. 量的 成長만을追求하는 것은 최후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方法이 되지 못한다.

최근 컬러TV 産業의 중요도가 가볍게 취급되고 있지않나 하는 염려가 있다. 이것은 수출 주종상품에서의 성장도가 VTR이나 전자렌지 등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한한 技術革新의 여지가 있고 그 용도와 기능에 따른 상품전개에 따라 잠재수요 또한 무한하다고 할 수 있는 컬러TV는 관련 산업 특히 電子産業의 성장발전을 촉진하는 원동력임을 재인식하여 기술력의 총집결과 성장발전 의지를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